

졸업하면 끝?

장애대학생은 사회 진출을 원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4.3.15. _ Vol.441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산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졸업하면 끝?

장애대학생은 사회 진출을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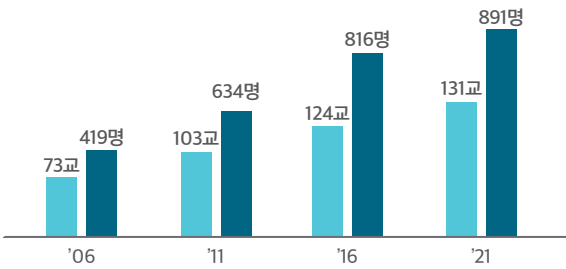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간사

장애대학생들의 휴학과 자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비대면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의 불편 가중, 대체자료 지원 부족 등 학습환경의 인프라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 이후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전공과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 장애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점과 성공적인 진로·취업 달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늘어나는 장애대학생, 진학의 이유는 무엇일까?

■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규모 확대¹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현황 © 교육부

-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전문대학은 총 131교, 891명('21년)으로 선발 규모가 확대되었음. 약 20년 전 총 73교, 419명('06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남

■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 지속 증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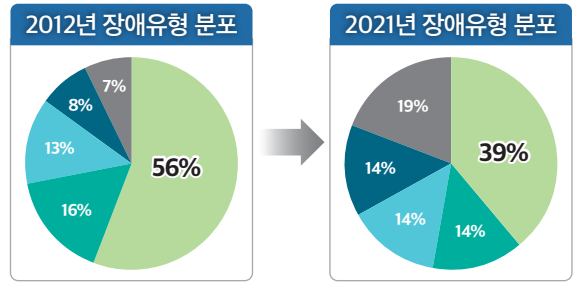
구분	학교 수		장애대학(원)생 재학생 수		
	전체	장애학생 재학	남	여	계
대학	246	220	4,642	3,172	7,814
대학원	246	89	247	154	401
대학원대학	44	10	9	10	19
전문대학	168	144	915	568	1,483
합계	704	463	5,813	3,904	9,717

장애대학(원)생 재학 현황(2020 대학정보공시) © 교육부

- 장애대학(원)생 재학생 규모는 2006년 4,045명, 2010년 5,213명, 2016년 8,747명, 2020년 9,717명임(대학, 전문대학 기준 장애대학생 9,316명). 장애대학생의 학습 수요에 발맞춰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2023년 기준 장애대학생 수: 총 10,151명 (대학 8,572명, 전문대학 1,579명)²

■ 새로운 장애유형 비중 확대



장애대학생 장애유형별 분포도 © 교육부

- 2012년 장애유형 분포는 지체/뇌병변장애 56%, 시각장애 16%, 청각장애 13%, 지적/자폐성장애 8%, 기타 7%임. 2021년 장애유형 분포는 지체/뇌병변장애 39%, 시각장애 14%, 청각장애 14%, 지적/자폐성장애 14%, 기타 19%임

- 지체/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발달장애, 기타 장애유형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자립과 적성 개발을 위한 진학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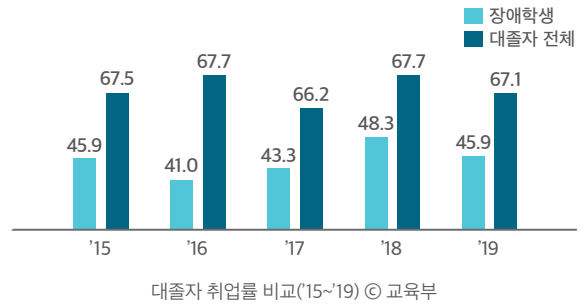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적성과 소질 개발	52(25.5)
전문지식 습득	14(6.9)
대학 졸업이 근무환경 및 수업에 주는 기대	3(1.5)
학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1(0.5)
생활자립 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기대	113(55.4)
직업준비 능력 향상 기대	18(8.8)
보호고용 형태의 취업 기대	1(0.5)
기타	2(1.0)
전체	204(100.0)

상급교육기관 진학 목적 © 국립특수교육원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2022, 교육부
 2 대학정보공시 :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대학, 전문대학), 2023, 대학알리미
 3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2021,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들의 상급교육기관 진학 목적은 '생활 자립 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기대'라는 응답이 55.4%로 가장 높았음. 그다음으로는 '적성과 소질 개발'이라는 응답이 25.5%로 나타났다. 그밖에 '직업준비능력 향상 기대'와 '전문 지식 습득'이라는 응답은 각각 8.8%와 6.9%로 나타남
- 장애학생들은 대학 등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함으로써 자신이 진로를 찾거나 구체화하는 적성 및 소질 개발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음



02 수준미달 취업률과 고용률, 정부의 대책은?

■ 낮은 수준의 취업률과 정체된 고용률⁴

- 대학별 실태평가보고서(2020)에 따르면, 대졸자 전체는 67.1%('19년), 대졸 장애학생 취업률은 45.9%('19년)임. 전체 대졸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67.9%, 2017년 65.8%, 2021년 69.6%임. 대졸 이상 고용률은 정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2023년 상반기 기준 58.3%)

■ 교육복지지원 개선 필요 대학 다수⁵

- 진로 및 취업 지원, 정보제공 등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자료에 따르면, 등급별 현황은 '최우수' 등급이 39개(9.2%), '우수' 93개(22.0%), '보통' 177개(41.8%), '개선요망' 114개(27.0%)로 나타남
- 2017년과 비교해 '개선요망' 등급(27.0%) 대학의 비율이 10.5%p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보통 등급과 합치면 절반 이상(291개, 66.8%)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해당 대학들의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필요함

등급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전체
캠퍼스 수 (%)	39 (9.2)	93 (22.0)	177 (41.8)	114 (27.0)	423 (100)

구분	'17년	'20년	등급 변화 비율
최우수	7.8%	9.2%	1.4%p 향상
우수	16.1%	22.0%	5.9%p 향상
보통	38.6%	41.8%	3.2%p 향상
개선요망	37.5%	27.0%	10.5%p 감소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방안 추진 및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

- 2022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7)에서 교

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 2022, 교육부
⁵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2021, 국립특수교육원

육부는 44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과 정책연구, 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함

- 과제 내 ‘거점대학 중심으로 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거점대학 협업을 통해 장애대학(원)생 취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취업캠프 등 운영 강화(’22~)를 세부 과제로 설정함

- 세부적인 내용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대학생에 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장애에 보고해야 하고, 대학의 장은 이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함. 또한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분석,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함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1.31.~2029.1.30.)

비전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충 ☑ 장애대학(원)생 실질적 학습권 보장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추진 과제	장애학생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개선 ☑ 장애학생 대학진학 지원 강화 ☑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기회 확대
	대학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책무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권역별 대학 지원체계 마련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운영 개선 ☑ 장애대학(원)생 지원 관련 대학별 정보공개 강화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구조 개편 ☑ 현장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 내실화 ☑ 거점대학 중심으로 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국립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현장소통 및 부처간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가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 실시 ☑ 대학과 소통 및 협업 강화 ☑ 관계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추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종합(안) © 교육부



특수교육법 개정 발의의 공동기자회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애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제30조의 2)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제33조)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2022.9.27.),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03 인터뷰 '장애대학생들과 장애대학생 사업 담당자가 말하는 진로·취업 지원 현황과 개선점'

장애대학생

※ 인터뷰 참여자 소개

- 졸업생 이00(시각)
- 졸업생 홍00(청각)
- 3학년 최00(청각)
- 3학년 권00(지체)
- 3학년 박00(시각)

주요 정보제공(지원사업 연계 및 참여 경험 등)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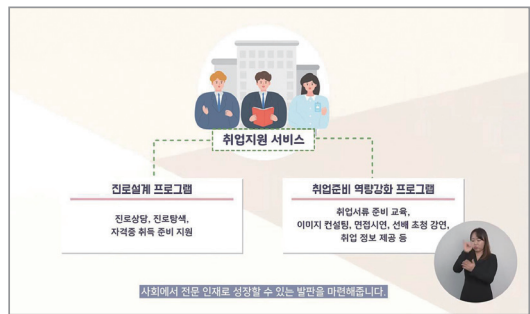
교내보다는 교외 활동, 취업 연계 교육 및 채용 정보 안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9

이00 이공계 관련 전공이다 보니 이공계 분야와 관련한 정보를 때때로 전달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KIRD)에서 진행한 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홍00 보통은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채용 설명회, 채용 정보, 취업 연계 교육 등 기업에서 주관하는 활동들을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취업캠프, 창업 캠프, 코딩 아카데미 등 며칠간 함께 지내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력서 경진대회, 멘토링 등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최00 주로 장애대학생의 취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또 연계된 채용 및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안내해 주십니다. 저는 채용 정보를 잘 활용해 본 적은 없으나 매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서 22년도 진행한 KIRD 주최 포용성장전문연구인력양성사업-직무교육생분야로 참여했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의 하계방학을 통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KIST)에서 인턴·연구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장애지원학생센터에서 먼저 해당 학생(이공계)들에게 유선으로 공지해 주고 저와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KIRD에서 직접 학교에 방문해 진행한 사업설명회를 듣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 관련 사업을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 충남대학교

권00 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연계 교육 관련 공고, 이외 공공기관 및 기타 사기업의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 정보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행

정직, IT 분야 직무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진로 취업 사업들은 별도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00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카톡방으로 진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주십니다. 최근에는 교내에서 열리는 ‘2024 장애인 공직설명회’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진로·취업 준비 시 개인적 어려움(혹은 주변 장애대학생 사례)

66

민관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홍보, 장애대학생 간의 교류 기회, 진로 분야 정보, 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99

이00 재작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학교 지원 담당자가 바뀌시면서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례로 작년 직무 경험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차장 추천서가 필요하여 찾아갔지만 어떤 사업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홍00 저희 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잘 알려주겠거니 하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지가 너무 늦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기 위해 지원을 할 때나 자기소개서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답답했습

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기한이 임박해서 공지한 경우도 몇 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일정들에 밀려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들을 겪은 이후로는 타 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권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역거점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곤 하였습니다.



교육부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권역별 거점대학' © 커리어톡TV

최00 저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취업 게시판’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지만 제가 주체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접근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애대학생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더욱더 효과적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생들의 취업스터디와 같이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라고 장애학생들을 모집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의 수료에 대해서는 잘 말하기 어렵지만 이 특별전형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진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 권00 저희 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지원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주 2~3회 정도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고가 게시판에 올라오지만, 그런데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직무는 행정직 또는 사무보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진로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진로, 취업 활동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연구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 다른 학우들의 경우 인턴십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협력하여 관련 경험을 쌓아나갑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접근 불가, 공간 협소, 지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 학생은 동아리 활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교내 로봇 제작 동아리의 경우에는 지하 동아리실에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학과 학술 동아리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단을 거부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지속해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소통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해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장애학생들은 실질적인 경험보다 학교 강의와 자격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내의 실습수업 참여도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협소한 실습실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실습은 계단형 강의실 구조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를 활

용하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에 경사로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과 특성상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수업이 많아 수업 참여 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화학 강의실에 경우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전동휠체어로는 전혀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 박00 학교별 정보 격차가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이전에 재학하던 학교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따로 없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겸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교에도 장애 학생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지원도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성공적인 진로·취업을 위해 학교 혹은 사회에 바라는 점

66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 분야를 경험할 기회를, 사회에서는 꿈꾸는 진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99

☞ 이00 학교에서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모집 시기, 사업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새롭게 입학하는 장애학생이나 기존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홍00** 아무리 많은 사업을 기업이나 대학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로 분야가 한정된 것이 아쉽습니다. 디자인, IT, 행정직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쪽 꿈을 꾸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습니다. 진로 분야를 한정을 짓지 않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리더십 특강 등 너무 광범위한 주제들이 많고,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겹치는 것이 많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00**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걸로 태가 나지 않거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의 유무가 시작점을 다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대학생이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받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필요한 지원 및 보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00** 인프라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인프라 개선과 함께 외부 기관의 인프라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장애학생 대상 진로 취업 사업이 지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교통수단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일례로 기관 탐방을 갔을 때 지방의 공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원하는 곳에 배치받지 못

하고 행정직 인턴십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기숙사 등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지만, 수가 부족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에 어렵게 성공한다 해도 원활히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제한 경쟁 등과 더불어 낙후된 시설 및 접근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장애 학생의 역량을 높여 보다 자연스럽게 진로 및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학생 캠퍼스 불편 실태는? © KBS 광주전남

- **박00** 슬프게도 장애학생 개인의 직능에 맞춘 취업보다는 장애인에게 특화되거나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공계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데, 기관탐방 등의 활동 시 대부분의 연구시설은 배리어프리하지 못한 인식과 건물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현재와 비슷한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장애대학생 사업 담당자

※ 인터뷰 참여자 소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성장실 권혁상 연구위원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이공계 장애 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혁상 연구위원입니다. '22년부터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햇수로 3년째 과기부 최초의 장애인 지원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바라는 사업 혹은 활동, 진로 정보 습득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진로·취업 준비를 하며 겪는 주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장애학생들이 겪는 표면적인 어려움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제한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높아졌지만, 채용공고에서는 장애인 제한경쟁인지 등에 대한 선별된 정보의 전달이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 '23년 장애대학생 적합 연구직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장애인 채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아 반복적인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들의 취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과 별반 다름없이 활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만을 선호하거나, 중

증장애인과는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건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배치 시 안전사고 우려나 혹시나 모를 사고를 염려해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는 채용 이후에도 장애학생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업 운영을 하면서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시각장애인 안내전의 출입을 금지한 사례와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 보조인 출입을 금지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학생을 연구기관에 매칭시키는 우리 기관에서도 힘이 빠지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공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 장애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진로·취업 지원(서비스)을 필요로 했나요?

- 장애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과 체험을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방문 및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대화하길 희망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례를 창출했거나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분들과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출연연구기관 탐방캠프와 온라인 멘토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장애학생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장애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취업을 위해 민관에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며 인상 깊었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장애인과 일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

았으며, 이를 계기로 장애에 대해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작게나마 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의 R&D역량 향상과 더불어 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장애인식개선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는 포용성장 사업이 더욱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더 많은 연구기관에서 장애학생들에 연구와 실습 경험을 제공해주길 소망합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과의 근무는 불편함이 아닌 조금 천천히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04 국내외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례

❖ 국외 공공 지원 사례(미국, 영국, 호주)⁶

-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중요함. 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한 법규들로 미국의 경우 재활법, 미국장애인법, 영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법 등이 있음. 특히 이 법규들은 대략적인 취업 방향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법규들을 근거로 고용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윈스톱센터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취업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주로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모든 장애유형에 따른 고려가 있음. 장애성인의 취업은 단순히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의 취업 지원 현황에 대한 검토에 있어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을 함. 호주의 경우 장애성인들을 중도(severe), 최중도(profound)와 같이 장애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특

⁶ 장애대학생의 취업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 방향 도출, 2017, 교육부



히 취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도나 최중도 장애인들을 전체 장애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장애학생의 장애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개별화-맞춤식 교육과 지원체계 사례

- 미국 BEST: 참여자 개별 진로 지원
- 영국 GradEmployNI: 참여자의 기술 및 요구 구체화를 위한 개별 면담 진행 후 인턴십 배치(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 호주 NDCO와 School2atWork: 전담컨설턴트 1:1 배치

◈ 국내 민간 지원 사례

▶ KB희망캠프



- (개요) 장애청소년이 구체적인 진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 꿈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청소년 전문 진로 멘토링 사업임(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별 장애청소년이 대학생 멘토와 1:1로 짝을 이뤄 스스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탐색하며, 실천해 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 (후원 및 협력 기관) KB금융그룹, 교육부, 보건복지부

- (사업 기간) 2013년~2019년
- (지원자 수) 1,427명 지원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2019 멘토링 우수 사례 공모전’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KB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지원사업



- (개요) 신입 장애대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최신형 노트북을 선물함으로써 장애대학생 역량증진 및 사회교류, 소속감 증대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로의 성장 과정을 응원하고 있음(대학원 진학 및 KB캐피탈, 한국전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사격선수 등 진출)
- (후원 및 협력 기관) KB국민은행,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기간) 2009년~
- (지원자 수) 2023년 기준 1,878명 지원

▶ 장애대학생 ‘아람코 등록금’ 지원사업



- (개요) 국내 4년제 대학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 우수한 장애학생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장학생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만남과 커뮤니티를 운영함(인당 200만 원 정액 등록금 지원, 선배와의 만남 등)
- (후원 및 협력 기관) 아람코, 교육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업 기간) 2015년~2020년
- (지원자 수) 199명 지원

▶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 사업 ‘모두(MODU)’



- (개요) 이공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 설계 활동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진로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 완화, 우수 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개별 진로활동 지원 장학금 400만 원 지급, 진로 멘토링, 기관탐방 등)
- (후원 및 협력 기관) 카카오뱅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업 기간) 2023년~

- (지원자 수) 2023년 기준 22명 지원

▶ 그 밖에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취업탐방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SK C&C 행복IT장학금’ 등 다양한 장애대학생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rd.re.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www.kead.or.kr/>)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http://www.freeget.net/>)



05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개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게 조기 개입하여 맞춤형 서비스(국정과제 90)’ 제공을 위한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은 ‘장애, 청년, 취업’이라는 다중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에 있어서 사회 자원 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성공적인 진로·취업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태도와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의 지원이 매우 중요함

❖ 정보제공, 네트워크 마련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강화

- 진로·취업 지원 정보에 있어 장애대학생들은 다양한 분야 고려, 유기적인 소통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파악됨. 외부 기관의 사업 홍보 요청에 따른 정보공유 외에도 장애대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맞춰 다양한 정보 발굴하고, 민관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또한 홈페이지 외 별도의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모집(선발) 시기에 맞춰 장애대학생들이 교내외 진로·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과 진로 고민을 나누고,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요구됨. 센터 차원에서 별도 조사와 연락을 통해 장애학생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동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개선(물리적 제약 해소 등)

- 장애대학생들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미설치, 공간 협소, 지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교내외 활동 시 원활한 진로·취업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강의 수강, 자격증 등 스스로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는 데 한계가 있음
-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렵겠으나, 장애대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배리어프리 환경 접근 환경이 필요함. 또한 장애학생들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기업,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 체험이나 실제로 취업 시에도 경험을 습득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낙후된 시설 개선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분야 민간기관 지원 확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에서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요구됨. KB, 아람코, 카카오뱅크 등 민간기관에서의 장애대학생 지원을 통해 미래 사회를 주도한 인재로 성장하는 우수사례가 다수 공표됐음
- 공공기관에서 대개 추진하는 체험, 컨설팅 등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활동과 함께 민간기관(특히 기업)에서 장학금 지급, 장애대학생 교류 등 경제적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가 확대된다면 장애대학생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로·취업 목표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현황자료 및 민간 장애대학생 사업 협력 강화

- 3년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교육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전형 외 일반전형 등의 입학생까지 포함하지 않아 전체 장애대학생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대학별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상이하여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홍보, 취업 정보 안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대학생 사업 관련하여 부처, 민간 그리고 지역의 대학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월간 **한국장총** www.kofdo.kr

발행일 2024년 3월 15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모두(MODU) 장학생 2기 모집

우리 모두(MODU) 꿈을 향해!
Make Our Dream Unlimited



신청기간

2024. 3. 13. (수) ~
2024. 3. 22. (금)

선발대상

전국 이공계 장애대학생 25명
※학년 제한 없음, 자연과학·공학 계열 가능
(의치약학 제외)

선발기준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가능성
(세부기준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진로활동 지원 장학금 1인당 4백만 원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 / 1차: 4월, 2차: 7월
- 이공계 장애대학생 특화 진로개발지원
이공계 장애대학생 맞춤형 전문 멘토링, 1박2일 캠프,
기관탐방, 취업 및 대학원 진학정보 제공
- 활동수료증 발급, 우수활동자 포상
사업 참여도와 성과에 따라
하반기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

사업일정

Search-Up Camp(4.12~13)

오리엔테이션 및 진로 설계캠프(이공계 전문 멘토링)

Build-Up Camp(7.4~5)

진로활동 중간점검, 마음챙김 전문가 특강

Rank-Up PT(11.15)

성과보고회, 활동 수료증 수여 및 우수활동자 표창

진로활동·멘토링(5월~11월)

개별 진로활동 수행 및 조별 진로 설계 멘토링 진행

※ 위의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인 정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장애인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www.kofdo.kr

문의

이메일 mail@kofdo.kr 전화 02-783-0067

주최



후원

